

-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시의회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하라”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성명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신공항 특위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7월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며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며 “중앙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은 국가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5개 시·도의 합의정신, 국가와 영남지역 공동발전을 저버리는

기만적인 술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변했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면 더 이상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